

【해 제】

## 김우철의 「만주 조선어 시단과 시인」\*

서재길\*\*

『간도일보』(1924.12 창간)와 『만몽일보』(1933.8 창간)의 병합(1937.10.21)으로 탄생한 『만선일보』는 해방 직전까지 만주 지역에서 간행된 유일한 조선어 신문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만주로 이주하여 ‘만주국’이라는 복합국가 체제 하에 ‘북향(北嚮)’을 건설하려 했던 이들의 고군분투가 실려 있는 한글신문이다. 1940년 8월 이후 조선 반도 내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민간 신문이 폐간됨으로써 총독부의 기관지격인 『매일신보』만이 유일한 한글 신문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식민지 말기 『만선일보』의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때 만주 조선어 문단을 ‘망명문단’이라 일컬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도 이 같은 『만선일보』라는 문화 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주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선일보연구회(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 수행연구팀)에서는 그 동안 『만주연구』 지면을 통해 『만선일보』 소재 만주국 조선어 문화활동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소개하게 되는 자료는 김우철이 「만주 조선어 시단과 시인(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일련의 실제비평이다.

김우철은 신의주 지역 문학의 대표 인물로서, 해방 전에 『시건설』, 『맥』 등의 동인지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만선일보』는 물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식민지 조선의 일간신문을 통해서도 활발한 문학활동을 펼친 비평가이다. 그에 대

---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2S1A5A2A03048910)

\*\* 국민대 한국어문화부 교수.

한 연구는 주로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그의 문학활동 전반에 대한 전기적 연구<sup>1)</sup>와 더불어 문학비평에 대한 연구로 연구범위가 확장되고 있다.<sup>2)</sup>

이번에 소개하는 「만주 조선어 시단과 시인」은 1940년 3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만선일보』 학예면에 연재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8번째 연재에 해당되는 부분(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四))의 『만선일보』가 유실되어 실제로 이 부분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나열하면서 비평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연재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련 번호 중 '속4(續四)'에 해당되는 글이 사라진 것이라 짐작된다.

제목	연재일자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一)	1940.03.27.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二)	1940.03.28.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三)	1940.03.30.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四)	1940.04.01.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一)	1940.04.26.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二)	1940.04.27.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三)	1940.04.29.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四)	유실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五)	1940.05.13.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六)	1940.05.14.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七)	1940.05.15.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八)	1940.05.16.

1940년 상반기에 연재된 이 비평의 가장 큰 미덕은 자료의 산일(散逸)로 인해 현재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1939년 『만선일보』 학예면의 내용을 유추할 수

1) 박태일, 「김우철 문학의 실증적 접근」, 『근대서지』 26, 2022.

2) 사책, 「『만선일보』 학예면의 실제비평 연구-김우철의 「만주 조선어 시단과 시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83, 2024. 본 해제는 만선일보연구회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 사책의 위 논문을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있다는 점에 있다. 필름이 소실되어 지금은 스크린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당대의 영화비평과 영화소설, 그리고 유성기 음반의 영화설명 등을 통해서 식민지 시기 최고의 영화 〈아리랑〉(1926)을 재구할 수 있듯이, 이 비평문을 통해서 1939년 만주국 조선인 문단, 특히 시단의 모습과 구체적인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939-1940년 『만선일보』 학예면에는 40명의 시인들이 쓴 총 70여 편의 시가 게재되어 ‘호화판’이었다고 한다.<sup>3)</sup> 사책의 매우 정교한 자료 정리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인과 작품을 아래에 소개한다.

시인	작품명
姜海心(姜彬)	〈湖心〉, 〈아침〉, 〈눈오는밤〉, 〈달밤〉, 〈만동이틀새〉, 〈頌春〉
金光鎬	〈旅愁〉, 〈消息〉, 〈港口〉
金井明	〈鎮魂〉
金福洛	〈옛날이그리워〉, 〈龍興江〉
金北原	〈鄉愁〉, 〈어리〉, 〈旗〉, 〈山〉
朴浪兒	〈南廣場〉
朴麟桐	〈鄉愁〉
朴定鎬	〈두마음〉, 〈잇고십허라〉
雪嶺	〈旅路〉
宋石礫	〈詩人〉
宋鐵利	〈苦〉, 〈雪夜〉, 〈爐邊雜吟〉, 〈庚辰元旦〉
申時堅	〈鏡泊湖畔〉, 〈누에〉
月村	〈가을밤〉, 〈浦口의 봄아침〉
尹君善	〈光明의窓〉
尹海榮	〈馬頌〉
李孤峰	〈追憶〉
李達根	〈憐憫〉, 〈早春〉, 〈山幕〉, 〈山岳과 平原〉, 〈山谷行〉, 〈墓地〉, 〈旅愁〉, 〈晩秋街道〉, 〈春雨〉, 〈지물무렵〉
李一葉	〈鄉愁〉
李村	〈悲哀〉

3) “七十餘 篇의 詩作品을 써메고 四十 名에 갓가운 新世代의 젊은 詩人이 登場한 셈이니 昨年 一年 間의 滿鮮日報 詩壇은 그 量에 잇서 豪華版이었다고 안이할 수 없다.” (김우철, 「만주 조선어 시단과 시인 (2)」, 『만선일보』, 1940.3.28.

張仁錫	〈北方의詩〉
趙演鉉	〈異國의밤〉, 〈밤비〉
趙俊哲	〈그날밤의追憶〉
趙鶴來	〈괴로운詩人의書〉, 〈園譜〉
千青松	〈漂泊民〉, 〈無聲哭〉, 〈詩二題〉, 〈異域의밤〉
哲園	〈질火爐〉, 〈土香〉, 〈담배煙氣〉
崔錫信	〈田園의黃昏〉, 〈가을밤〉, 〈鄉愁〉, 〈哀唱〉
崔在哲	〈雪夜日記〉
春草	〈斷想〉
(韓)鳴泉	〈저울어느아침〉, 〈最後의微笑〉, 〈눈내리는밤〉, 〈시드른장미꽃〉, 〈밤〉, 〈리듬〉, 〈雙影〉, 〈終焉譜〉
韓竹松	〈偶像〉, 〈눈물저즌茂山嶺〉, 〈病心數章〉, 〈叙情〉, 〈英采의노래〉
韓泰鳳	〈大陸의밤〉, 〈汽笛〉
黃(載)健	〈비·馬車〉, 〈喊聲〉
咸永基	〈養蜂〉, 〈안테나〉, 〈風景〉, 〈生活〉, 〈春雪〉, 〈肖像〉

다행스럽게도 김우철은 자신의 비평 속에서 위에 열거한 작품들의 전문 혹은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서 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비평을 통해서 원문이 부재하는 일부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하루야마 유키오(春山行夫)로 대표되는 1920-30년대 일본 모더니즘 시론에 깊은 영향을 받아 '감정의 건강성'과 '포에시의 신선함'을 좋은 시의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김우철이기 때문에, 그의 감식안에 포착된 작품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 글이 발표된 1940년은 식민지 조선에서 최재서와 김기림의 주지주의 문학론, 그 구체적 실천으로서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 등이 이끈 이미지즘 시와 고(故)이상이 주도했던 초현실주의 시의 유행이 일단락되어 가던 시점이었다. 이 같은 '뒤늦은 유행'은 1940년 하반기에 『만선일보』 지면에서 뒤늦게 등장한 초현실주의 시 지향의 『시현실』 동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4)</sup>

한편 이 비평은 비슷한 시기에 연재된 '만주조선인 문학 신제창'이라는 제하의

4) 김진희, 『『만선일보』에 실린 「시현실 동인집」과 동인 활동의 문학사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65, 2018.

일련의 비평<sup>5)</sup>과 짝을 이루는 글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40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서 황건, 윤도혁, 김귀, 박영준, 김춘강, 이광현, 현경준, 신서야, 안수길, 송지영 등 10명의 필자가 참여한 일련의 논설들은 만주국 내 조선(인) 문단의 건설과 문학 창조를 주장한 바 있다.<sup>6)</sup>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메타적, 담론적 층위에서의 당위론적 주장에 그쳐 있음에 비해서, 김우철의 「만주 조선어 시단과 시인」은 당시 만주국 조선인 시단에서 활동한 시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만주국 조선(인) 문학의 건설을 통해 만주국 건국에 '기여'해야 한다는 1940년대 이후 『만선일보』 지면에 나타난 구심적인 담론 실천과 구체적인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원심적인 창작 실천의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 같은 괴리는 식민지 말기로 갈수록 봉합하기 힘든 방향으로 확대되었고, 「예문지도요강」 발표(1941.3) 이후 학예면으로 대표되는 조선인 문화 장은 점점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만주국이 지향하는 담론적 질서 속으로 수렴되어 버린다. 결국 창씨개명을 한 문인들과 일본인 작가들의 대일협력적 담론이 그 빈 공간을 대체하기에 이른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를 통해 이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5) 이에 대해서는 『만주연구』 34집(2022)에 실린 필자의 해제를 참고할 것.

6) Lehyla G. Heward, "Writing 'Manchurian-Korean Literature' in the *Mansŏn ilbo*, 1937-1942",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3, no.2, 2020: 사책, 「1940년대 〈만선일보〉의 조선문학 건설 담론에 대한 연구-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의의 제기 동인(動因)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5, 2023.

## 【자료소개】

### 〈일러두기〉

- 아래 자료는 1940년 3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만선일보』에 연재됐던 김우철의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을 입력한 것이다.
-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입력했다. 다만 가독성을 위해 현대 어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했으며, 문장 끝에 마침표를 추가했다.
- 자료의 각주는 입력자가 설명을 위해 추가한 것이다.
- 오기가 분명해 보이는 경우 입력자가 본문을 수정하였다.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했다.
- 자료 입력 및 교열 : 우정덕(국민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채봉(국민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一)」(1940년 3월 27일)

詩論 읽는 詩가 藝苑에 雜草 마냥 茂盛하는 時代도 있겠다. 花朝月夕을 咏嘆하고 春花秋○을 賞讚한 風月式의 時調 歌謠—거기서 別로 썬여난 배 업는 所謂 新詩 自由詩가 “詩”의 光輝로운 榮譽를 누린 적도 갖가운 過去의 일이었다.

自然發生的인 咏嘆調의 詩歌와 本能 陶醉의 山새들의 노래(울음)과는 무엇이 달을 것인가! 楊柳間에 黃金夢을 꾸미고 조와라 울부짖는 저어 쇠소리(의 本能 陶醉의 노래와 秀麗한 山水를 逍遙하며 때로 興겨워 무름을 치며 『오호 아름다운 江山이여!』하고 脉<sup>1)</sup>嘆하는 式의 詩○와 그 作爲에 잇서 무엇이 달을 것인가?

今日 우리가 作爲하고 잇는 詩는 本能 陶醉의 山새 울음도 안이오 哀傷에 함초롬히 저저 時世를 脉<sup>2)</sup>嘆하는 風月調의 그것도 안이오— 單純한 感情의 素朴한 表白도 안이다. 今日의 詩人은 自己가 營爲하고 잇는 時代에 對하야 無意識일 수 업스며 『아리스토텔레스』 以後의 『詩學』에 對해서 無關心일 수 업스며 文字의 機能과 表現方法(形式)이며 그 박계도 새로운 言語의 採擇 및 創造에 骨머리를 알아야 한다.

이리하야 詩에 關한 批評이 近世에 와서 머리를 들고 일어선 것이다. 허나 아직 一部의 詩人層에서는 詩論의 不必要를 主唱하며 詩論이란 純眞한 詩人을 汚傷하는 無用之物이라고 罵倒한다. 이런 측을 警戒하야 春山行夫 氏는 『—今日의 詩人은 오직 나면서부터 童謠 詩人 惑은 本能的 詩人을 指稱함이 안이라고 하면 今日의 詩人이 할 일은 單純한 印象의 傳達이나 愛傷의 告白의 形態化가 안이고 좀 더 根本的인 『포에지-』의 追求에 向해지야 할 것이고 그러매로 詩論이야말로 今日의 詩人의 最大 關心事가 안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던졌다.

今日의 詩人은 時代의 『흐름』에 對한 歷史的 努力—主知的 活動이 업시는 優秀한 詩文學을 創造할 수 업슬 것이다. 『포에지-』와 詩論과 批評에 등을 지고 돌아서서 能히 偉大한 詩作品을 創造할 수 잇슬 것인가? 물론직이 그는 쇠소리처럼

1) 연재 중 사용된 단어로 짐작할 때 '脉'의 오기로 보인다.

2) 연재 중 사용된 단어로 짐작할 때 '脉'의 오기로 보인다.

올다가 올다가 제풀에 지쳐 죽어갈 것이다.

昨年(一九三九年) 한 해 동안의 滿鮮日報 詩壇은 그 量으로 보아 제법 活氣를 띄인 幅이다. 그러나 그 質을 따져볼 때 그것은 百花爛漫이 아니라 雜草茂盛인 感懷를 보여주었다. 詩論에 있어서도 咸亨洙 氏의 『時代·精神·方法』—詩에 한 푸레그멘트—란 單一篇이 掲載되었을 뿐 荒涼하였었다.

허나 이 單 한 篇—『슈레-켈』의 『斷片』形式을 짜온 斷篇은 足히 十 篇의 凡俗한 詩論의 質을 싸우고도 남음이 잇섯다.

###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二)」(1940년 3월 28일)

哲學者와 一脈相通하는 詩人은 斷片을 사랑한다. 詩人은 雜多한 具體보담도 詩化된 抽象을 사랑한다. 同時에 創作하는 哲學者 哲學하는 詩人은 斷片의 內容인 『아이로니-』 『戲畫』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로니-란 逆說의 形式인 것이다. 逆說이란 善이며 그리고 同時에 偉大한 것의 總合이다.』 『슈레-켈』

내가 信賴할 수 있는 內地 文壇의 唯一의 詩論家 또는 詩人인 靑山行夫<sup>3)</sup> 氏도 그 詩論에 『슈레-켈』의 『斷片』形式을 본따서 通說과 戲〇도 詩篇을 詩化함은 나에게 잇서 感想 汲흔 現象이 안일 수 업다.

우리 詩壇에도 몰음직히 『슈레-켈』의 『斷片』을 본따든 逆說的 詩論이 輩出함을 鶴首苦待하는 바이다.

이제 이 粗雜한 序頭—『푸로로-그』를 집어치우고 昃을 돌려 昨年 一年 間의 滿鮮 詩壇의 回顧와 아울러 今年 新春에 本報를 通하여 掲載된 詩作品을 모아노코 滿洲 詩壇의 將來을 展望코저 한다.(續)

三

七十餘 篇의 詩作品을 써메고 四十 名에 갓가운 新世代의 젊은 詩人이 登場한

3) 春山行夫의 오식 또는 오기로 보인다.

셈이니 昨年一年 間の 滿鮮日報 詩壇은 그 量에 잇서 豪華版이었다고 안이할 수 업다.

그 量 그 質로 보아 『殊勳甲』은 威永基 李達根 韓竹松 鳴泉 姜海心(姜彬)—다섯 분이다.

威永基 氏—『養蜂』 『안테나』 『風景』 『生活』 『春雪』 『肖像』 등 會心の 佳作 六篇. 나는 中에서도 『養蜂』과 『風景』을 사고 십다.

『九十 立方센치의 箱子 속에 아당진 小天國이 잇서 가장 곱〇스리 운다 사람이 꿈 가티 피다.』(『養蜂』의 初聯)

이 詩人の 『포에지-』는 이미 『아당진 小天國』에서 꿈처럼 썩더가고 잇다. 그 는 神話나 傳說에 對하여 슬퍼할 줄 몰은다. 『슬픔』의 『나일江』에 빠져서도 슬퍼 하는 대신 『슬픔』의 河床에서 生活의 眞珠를 캐어나고야 만다.

『맡어오는 世紀의 어두운 말썹이로다

明朗한 生活은 가지고

思想은 憂愁의 오솔길을 待徊하다.』

—『안테나』의 一 節—

『이로니-칼』한 戲畫詩를 보는 양 십다. 哲學하는 詩人—그의 詩는 쓰여진 部分 보다 쓰여지지 안흔 部分에서 더 만히 讀者의 心絃을 울린다. “포에-지”를 만히 가진 이 詩는 『슬픔』을 슬퍼하지 안흐매로 不幸한 詩人이다. 누구는 말하리라. 그의 詩에는 詩的 音律이 업다고— 그러나 그의 詩엔 散文에서 區別할 수 잇는 獨自의 內在的 音律이 潛流하고 잇슴을 본다.

『스물 한 해가 沙漠風가티 쏘-야니 내려간 草原에 낮서른 女人 하나 玉指環을 내여 내 가슴에 못기로 情火는 보채여 貴한 선물을 태우는 季節을 賞하다.』

—『肖像』의 一 節—

우리는 그의 詩에서 希臘의 古代 神話를 갖고 잇는 〇味와 希臘의 繪畫美를 同時에 맛보고 느낀다.

四

李達根 氏—『憐憫』『早春』『山幕』『山岳과 平原』『山谷行』『墓地』『旅愁』『晚秋街道』『春雨』『지물 무렵』 등 十 篇。

이 詩人은 生活을 가지고 있다. 生活하는 霸氣와 野火 갖흔 意慾이 있다. 剛直한 生活力(意志)을 갖고 있다. 이래서 그의 詩는 코리타운한 書齋의 詩帖이 아니라 健康한 生活의 詩로 된다. 그에게는 生活이 곧 詩요 詩가 곧 生活인 것이다. 그럼럼로 感情의 ○堤가 문허지는 대로 或은 느끼고 새로는 呼訴하고 새로는 軟粉紅 感傷에 빠지기도 하고—이 詩人은 “포에—지”의 詩人은 안이다. 허나 健康한 生活이 있고 素朴한 그러나 剛直한 表現이 있고 젊은이의 脈을 두다러 感情의 山脈이 즐기차게 새뒸다. 아프로 詩學에 對한 探究와 技法의 鍊磨를 企待려 조흔 結實을 하리라 믿는다. 신티로 이 詩人의 열 編 詩作品 속에서 내가 取하고 신티흔 『지물 무렵』이란 詩를 옮겨서 그의 가슴을 햇쳐드린다.

『저녁 煙香 妖女마냥 村落에 머리 풀 무렵 버섯가티 도다난 草舍는 夕映에 썬 올라 손風琴 하나 펼 자리도 업는 좁은 欄干엔 湖水마냥 짹짹한 가난이 밀려오고  
 映窓을 찢고 흘리간 하늘가에는  
 鄉愁가 물새 되어 靜寂을 쫓고  
 가난에 저리운 고닭은 녀들은 새로운 太陽을 마즈며 꿈향아리에 새진다.  
 思念의 馬車를 “오-로라/4)로 몰고 십허도 굴레를 쓴 가난한 말(馬)이 疲勞하다.』5)  
 아하 希望하는 思念아 툃 터저다오  
 저 山 밧 응달샘 솟듯이도  
 말발굽 달리는 七百 里 遼東별 가티도!』  
 이리하야 즐기찬 生活 熱情은 굴레를 쓴 가난한 詩의 말을 타고 七百 里 遼東入6) 밧을 세차게 달린다. 圓舞하는 蒼죽과 함께.—

4) 큰따옴표의 오기 혹은 호식으로 보인다.

5) 작품이 아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잘못 삽입된 오식으로 보인다.

6) 이런 식의 표기 방식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바로 위에서 ‘요동별’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오식으로 보인다.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三)」(1940년 03월 30일)

五

故 韓竹松 氏—『偶像』 『눈물 저즌 茂山嶺』 『病心數章』 『叙情』 『英采의 노래』 등 五 篇.

이분은 시인이라니보다 民謠歌人으로 待接하는 게 禮儀일 듯싶다. 內地文壇에 그 例를 찾자면 西條八十 氏가튼—말하자면 多情多恨한 叙情歌人이다. 노래는 지어도 詩는 쓰지 못할 運命을 타고났다. 悲哀를 悲哀로밖에 그러케밖에 더 表白할 줄을 모르는 이 歌人은 쇠소리마냥 울다가 울다가 제풀에 짓치 죽어갔다. 詩人이 凡俗한 感傷에서 自己의 魂을 건지지 못하고 自己의 才致에 自己陶酔되어 잇스면 平生 自己의 價値를 發見하여 向上시키지 못하고 安價한 詩的 法悅에 生埋되고 마는 게 일상이다. 슬픔의 洞壁을 疑視하고 거기서 슬픔의 安隱함과 法悅를 찾지 못하면 本能 陶酔의 쇠소리에서 詩人의 光榮스러울 배 없다. 이 民謠歌人의 타고난 才分을 나는 못내 아까워한다.

鳴泉—『겨울 어느 이침』 『最後의 微笑』 『눈 내리는 밤』 『시드른 장미꽃』 『밤』 『리듬』 『雙影』 등 七 篇.

이 시인은 모배 濫作家인 상 쉽다. 多作이란 馱作을 意味함은 안인 同時에 寡作이 반드시 力作을 意示함도 아니다. 『곡토-』가 多作을 하는 것도 芝鎔이 寡作을 자랑삼는 것도 다 그분들의 自己 “포-즈”요 멋이면 멋이지 아랑곳할 배 없다. 하지만 濫作의 所産인 習作(심하면 붓작란)을 世上에 發表함으로써 文名의 高揚을 꾀하는 이가 안다면 世上은 이런 詩人을 엇더케 待接해 줄 것인가? 한 번 馱作을 發表함으로 因하여 會心의 佳作인 그의 前 作品에서 바든 讀者의 조흔 印象 感銘까지 滅殺하고 나중에는 그 詩人에게 向한 幻滅까지 느끼는 일이 非一非再가 안인가? “팬” 大衆의 人氣를 苦慮 腐心하는 一流級 女優의 心情에서 詩人은 배울 배가 업슬 것인가? 이 點에 商利가 밝은 우리 芝鎔은 말한다. 『—사철 지지귀는 까마귀 참새를 위하여 憤然히 편을 드는 壯快한 大衆詩人이 나서고 보면 聽覺의 選民들은 쇠소리 죽다리 편이 아니될 수도 업스니 豪奢스런 귀를 타고난 것도

무슨 잘못이나 아닐가 모르겠다. …… 詩人이 무슨 까닭으로 마소의 過勞와 토끼의 多産을 본바들 것이냐. ……그러나 練習과 發表를 混同함에 잇서서는 지저분하고 괴죄죄한 虛榮을 活字化한 것밖에 무엇을 잊어볼 것이냐.』

鳴泉은 우리 『詩聖』 芝鎔에게 敎峻을 바듬이 잇스라.

『雙影』 가튼 『레벨』 點에 達한 作品을 내여노흔 鳴泉 님이 『눈 내리는 밤』 『겨울 어느 아침』 『시드른 장미꽃』 갖흔 駢作을 公公然히 發表함은 이 어인 魂神의 造作이뇨? 님오여! 좀 더 文明을 삼가시라. 藝鎔이 마냥 商利에 밝으랴. 나는 이를 懲戒하기 爲하야 이제 다시 駢作이 標本을 보히노니 作者여 怨여 하기 前에 먼저 自己 罨을 함키라.

『소리 업시 문<sup>8)</sup>이 부실부실 나리는데  
들장에 턱을 괴고  
넌 기대리는 마음 아득한 이 밤

등불 및 그림자 단돌이 밤을 새는  
기-나 밤도 잠들고……

소리 업시 눈은 부실부실 나리는데  
소리 업시 밤은 깊히 간다』  
—『눈 내리는 밤』에서—

『시드른 장미꽃』은 이보다도 더 한層 幼稚하다. 이런 것을 詩라 할 수 잇다면 나는 벌써 詩集 千 卷도 더 發行했슬 것이다. 그의 詩(?) 『겨울 어느 아침』이란 것을 散文體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讀者여 微笑하라!

『찬 空氣는 이 밤 멧사람의 恐怖를 에워싸슬가? 곱단의 아지씨가 아침 골목길을 기춤 쿵쿵 기춤 사러진 다음 요강 쓰는 소리 豆腐 장수 목청 고동 소리—이는 쏘 무서운 殺人칠 하로의 칼날이다. 차라리 汽車 박회에 쉼겨들어 이 가슴을

7) 앞서 정지용을 언급한 문맥으로 보아 ‘芝鎔’의 오식으로 추정한다.

8) 작품의 뒷 맥락을 볼 때 ‘문’의 오식으로 보인다.

특 갈러 노코 싯별건 피를 世上에 발라 노코 시픈……爭鬪여! 차라리 내 마음의  
어름장을 우둥우둥 씹어먹으리라!』

阿阿 大笑! 이분이 “밤” “리듬” 『雙影』 가튼 象徵派 詩를 썼다는 것은 奇跡 아니  
면 偶然일까? 鳴泉이여! 나의 酷評에 駭짓시 對答할 努力과 自尊心의 光輝롭은  
明日을 가지라! 詩人은 高漫해야 한다. 志操를 굳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대들이  
여! 詩人의 보배로움과 사랑을 알다!(續)

###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四)」(1940년 4월 1일)

六

姜海心(彬) 氏—『湖心』 『아침』 『눈 오는 밤』 『달밤』 『먼동이 틀 새』 『頌春』  
등 六 篇의 詩를 發表한 氏는 아침의 湖水마냥 아름답고 달밤의 湖水마냥 고요한  
敍情詩人이다.

그의 고요한 敍情이 情慾의 野山에 올라 가면 『D·H·로렌스』를 닮아 瞳孔에 불  
을 켜다. 그러나 淫慾에 陷하지 안음은 恒時 그의 詩心이 湖心마냥 해맑고 純潔한  
탓일까?

『어둠에 삼킨 露房 속에… 차거운 별빛 머리 우에 준다.

그는 그의 ㅅ-알간 능금가튼 情慾을 본다. 이윽고 그들은 ㅅ 宇宙를 꾸미다 ㅅ  
는(닭) 우리 나오는 목으로 해를 닳구면 두 瞳孔- 불을 켜다.

피빛 바다—

멀—니 靈峰에 내려 퍼는 白孔雀!

도두워 벤 벼개 우에

야원 꿈 바수어지다.

—『먼동이 틀 새』 全載—

그의 詩 『달밤』도 鐵筆한 달밤의 한 幅 詩畫를 보는 양 ㅅ어 ㅅ타! 『눈 오는  
밤』 『徹夜』 『頌春』 등 詩篇은 그 하나가 雅淡한 한 ㅅ기 蘭草 花盆을 鑑賞하는  
듯 清新한 口味을 도둔다. 藝術—더구나 詩作品은 新鮮함을 希求한다. 새로운 感

覺. 새로운 秩序(形式) 새로운 言語美 清新한 『뉴-앙스』. 새로운 『포에지-』 『포에지-』의 花草 바꾸니!

『밤 쓸을 할트며 새든 별! 날카로운 솔개미(太陽) 나래에 채여가고  
이슬 내린 쓸엔 풀香氣 흙냄새 풍겨 코를 콕! 찌르다 흔들리지 않는 아츰 空氣  
풍기면 마음 졸졸 흐르는 샘물 가티 맑다.

솔개미 나래래처럼 두 팔을 짝-별리면 마음 하늘을 쏘아날르다. 날르다.』

이 얼마나 清新한 口味를 도두는 詩幅인가 보냐.

여기 ○○○○○○○○<sup>9)</sup> 엿보고 고요히 微笑할 수 있다.

七

나는 以上 點描에서 于先 세 分의 新世代 詩人를 차낸 法悅을 讀者와 더불어  
난을 수 있다. 『포에지-』를 만이 갖인 咸永基 氏와 生活의 詩人 李達根 님과 아름  
다운 絳情詩人 姜海心 氏과와.

그러면 그 法悅을 좀 더 오래 즐기기 爲하야 안이 보다 새 詩人의 發見을 爲하  
야 나의 『스크랩·썩』 次例대로 七十餘 篇의 詩作品을 鑑賞하여 보련다.

尹海榮 氏—『馬頌』

이와 갓흔 시를 위하야 警告한 春山行夫 氏의 말이 생각난다.

『—意味에 依하야 지나치게 混亂된 詩는…… 粗雜한 참새 세가 群集하는 한 그  
루의 나무를 聯想식한다.』

韓泰鳳 氏—『大陸의 밤』 『汽笛』

素材의 無秩序한 羅列. 모름직히 詩想을 닥그라. 『汽笛』은 佳品이었다.

金光鎬 氏—『旅愁』 『消息』 『港口』

『想像보다는 슬픈 旅愁에 잠기다. 旅愁는 淒涼했다. 旅愁는 나를 올렸다.』(旅  
愁)의 最終聯—이 무슨 卒劣한 表現인가. 詩에 잇서 文字(言語)의 撰擇이란 가장  
重大한 일이다.

9) 한 행 판독 불가

陳腐한 文章은 詩興을 滅殺하는 法이다. 文字의 撰擇도 重하지만 그 우에 秩序 ○10)置도 輕視할 수 없다. 그 表現에 하나뿐인 文字(言語)가 바로 노힐 새 알맞추어 들어마섯서야 格에 어울리고 興을 도든다.

『消息』은 詩가 안이라 書信을 읽는 상 쉽다. 그 最後句에 『世上 人情 다 變해도 山川草木이야 變했슬리냐』 한 것이 있다. 『港口』에서도 이 作者는

『港口는 늘 淒涼했다』(最初句)

『오! 港口는 늘 淒涼만 하고나』(最終句)

이리케 感情의 『크로-츠업』을 讀者에게 強調한다. 이것을 가르쳐 感情의 素朴한 傳達이라 붙을른지는 몰으나 詩句가 이래서야 무슨 口味가 動하며 오래오래 두고 씹는 맛이 잇슬가. 세 篇 모다 駉作은 아니나 取할 것이 업섯다.

千青松 氏—『漂泊民』 『無聲哭』 『詩二題』 이분은 散文을 그저 聯 行을 사라 토막토막 움겨노흐면 詩가 되는 것처럼 生覺하는 모양이다. “포에지-” “포엠”에 對한 認識을 바루잡고 再出馬하시라. 散文을 토막토막 새여서 聯과 行으로 곳치 논 것이 時가 안인 것처럼 聯과 行이 바로선 詩를 散文처럼 줄줄이 내려 쓴다고 詩가 散文이 될 수 업슴을 青松 님은 아시나 몰으시나?—문저 그 妖妙한 理致를 體得하시이다.(續)

###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續一)」(1940년 4월 26일)

金北原 氏=『鄉愁』 『어리』 『旗』 『山』.

詩才가 넘치는 이 詩人은 그 天品에 잇서 金東奎 氏와 조흔 『콘튜라스트』다. 그래서 그런지 “窺” 詩同人으로서 現在까지 그들은 詩的의 呼吸을 가티 하고 있다. 金東奎 氏와 步調를 갖치 하야 “窺”誌를 썬매고 나가는 才致 잇는 詩人이다. 『鄉愁』의 風景 描寫-『어리』의 觀照力-『旗』의 象徵 『山』의 自然 描寫 어느 한 곳 欠잡을 데 업는 佳品들이다. “포에-지”를 남겨두면서도 幻想에 썬러지지 안는 이

10) 원문을 보아 한 글자가 식자될 만한 공간이 존재하나 오식 혹은 원문 훼손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맥상 ‘配置’로 추정한다.

詩人是 新鮮하고 健康하다.

朴浪兒 氏—『南廣場』

이 작품은 昨年 一 年間 滿鮮日報 學藝面에서 주서 읽은 雜多한 詩作 속에서 가장 感銘 깊게 읽었고 또 力作이라고 내세우고 심흔 佳作이다.

여기에는 都市 文明에 對한 盲目的인 反抗 대신 그 魅力을 잊지 못하는 都會 青年의 浪漫性이 싹트고 있다. 現實에서 逃避하지 안코 現實의 醜雜한 廣場에 뛰어들어 그 속에서 美와 眞善을 차츰려고 하는 生活人의 “포-즈”가 엿보여 미듬직하다. 갑싼 感傷도 서툰어치 咏嘆도 없다.

『이 거리를 나는 사랑하오 나의 풋사랑의 아련한 追憶과 가티도 사랑하오. 내가 이 거리를 사랑하는 것은 新市街의 心臟部라고 해서 그리는 것이 안이오. 또 八方으로 쏘린 放射線 道路가 내 맘에 들어서 그리는 것도 아니오. 나는 이 거리위를 달리는 馬車. 마차의 潮水를 사랑하오 鄉愁를 자아내는 밤이면 나는 언제든 이 거리에 나와 말발굽 소리의 交響樂을 듣는 習慣을 가졌소……』

이 青年 詩人은 生活을 사랑한다. 粗雜한 말발굽 소리에서도 生活의 感情—흐름 生活하는 者의 기쁨을 感得하는 이 詩人은 決코 不幸할 수 없다. 그는 이 거리의 豪華로운 享樂面에 ○해서도 安價한 逆情을 吐露하지 안코 그것의 魅力을 率直히 告白하는 雅量을 가졌다. “무-직”에서 듣는 “세레나드”의 高요한 “멜로디-”도 눈을 감고 턱을 고이고 故鄉 생각에 잠겨 듣는 이 青年의 淡白한 絳情에 나는 帽子를 벗고야 만다. 허여튼 昨年의 諸 時作品 中 『特等席』에 올려 안치울 만한 力作이다.

###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續二)」(1940년 4월 27일)

十一—11)

黃載健 氏—『비·馬車』

11) 뒤에 이어지는 소설의 번호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전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단순 오식으로 보인다.

오직 單 한 篇의 散文詩다. 비 오는 異鄉의 거리를 馬車를 타고 지나며 壼情 散文詩다. 伏線的인 描寫로 死體의 모습을 暗示하고 人類의 平和를 위하여 『노아』의 洪水를 祈願한 그윽한 心情— 이 詩는 비 오는 街裡를 굴리가는 馬車의 絞情과 함께 저무러 가는 世紀의 運命을 고요히 슬퍼한 沈鬱한 詩다. 詩의 表情을 읽을 수 있다는 그 點에서만도 그 詩作品은 甲上에 處한다.

以上으로 大略 作品 總評—評이라기보다 讀後感은 뜻난 세움이다. 우리는 順序에 따라 咸永基 李達根 姜海心(彬) 金東奎 金北原 黃載健 朴浪兒 등 일곱 분의 優秀한 詩人을 차지내었다. 그 우에 『南廣場』(朴浪兒)란 力作을 昨年 한 해 詩壇의 紀念碑로 내세울 수 있겠다.

그리면 今제 回顧의 책장을 덮혀 넘기고 新春 詩壇을 통한 새로운 展望으로 눈을 돌려 보자. 거기에는 얼마나 한 進展이 있고 얼마 만한 計劃이 되사리고 있는가? 新春의 發展된 廿餘 篇의 詩作品을 거울로 히야 새로운 動向을 打診해 보기로 한다.

十

『스크랩·썩』에 順序 업시 붓쳐 모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詩作品이 昨年分이 고 어느 것이 今春 發表分인지 分辨하기 어려우나 記憶에 살아 오르는 대로 新春에 發表된 詩作品을 鑑賞해 보기로 한다.

哲園 氏—『질火爐』 『土香』 『담배 煙氣』 詩想이 폭신한 『쏘파-』에 자리를 잡었 슴에도 한사코 『포-즈』가 間間이 달쳐 詩의 幽玄境을 일으키 못함은 이 시안을 위해 서운한 일이나 슬퍼할 때 아니다. 詩의 妖妙한 香味를 벌서 맛본 이 詩人은 언제 좀 맛나게 자근자근 집집어 먹는 方法을 消化하면 그만이다. 무르익은 葡萄 알을 혀끝에 스프르 올리노코 그 香味를 질기— 詩人은 그 法과 그 멋(포-즈)과 그 能<sup>12)</sup>와 그 才致(技巧)에 能通하면 詩人의 名譽와 光榮을 차질 수가 있다.

哲園 氏의 詩帖 三章에서 나는 『질火爐』의 高요한 想念과 다사로운 未練을 첫

12) 원문을 보아 한 글자가 식자될 만한 공간이 존재하나 오식 혹은 원문 훼손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곱는다. 『土香』 『담배 煙氣』 두 篇이 佳品이나 『질火爐』에 하면 『土香』은  
想想이 무르익질 못했고 『담배 煙氣』는 表現이 어지럽다. 이제 詩의 呼吸과 脈搏을  
알아 想과 技를 닦으면 조흔 詩人이 되리라 展望된다.

趙演鉉—『異國의 밤』

哈爾濱의 밤을 自己의 “心鏡”에 빚추어 노래한 이 詩는 그 霧圍氣를 제법 능숙  
하게 살려 노았다. 息을 들자면 終聯에 가서 『異國- 國際都市! 밤!』과 갖흔 雄辯  
조의 表現은 오히려 이런 霧圍氣를 을픈 詩의 그 霧圍氣를 傷하지 안흔런지?...  
作者와 더불어 再思해 볼 일이다.

宋鐵利 氏—『苦』 『雪夜』 『爐邊雜哈』 『庚辰元旦』 등.

네 篇에 欠잡을 데 업는 질곡한 詩品이다.

하나씩 들추어 보자면 『苦』는 人間의 一生을 苦에서 나서 苦로 돌아가는... 虛  
無를 을픈 것인데 그 날근 表現이 눈에 거슬리나 그저 그런대로 수수하게 꾸며  
노았고 『雪夜』는 눈 오는 밤의 敘情을 淡泊하게 그리 내여 그 밤이 心境을 방불  
케 하였다. 雪國의 한 폭 風景畫를 보는 상 심흔... 그러면서도 그와 함께 高요한  
敘情의 잔조로운 波響을 늦기게 하는 佳品이다. 『爐邊雜哈』은 『火爐』 『沈默』 『反  
芻』 三 點으로 되 잇는데 그 詩의 品位가 一家를 일우었다. 大抵 朝鮮 文人(詩客)  
들이 一家를 일우었다고 치면 우리에게 聯想되는 것은 岸曙의 格調와 巴人의 古  
典的 雅趣 春園의 佛教的 信念의 凝固體..... 그런 것이 풍기는 古風한 薰香과 歸  
依的 思想과 念佛의 沈幽味다. 早老病의 朝鮮人 中에서도 詩人은 早老한다. 조선  
의 詩人 墨客은 三十에 늙어 빠져 이미 古風한 風趣를 사랑하고 新鮮한 〇氣를  
일어 念珠를 해아리며 過去를 反芻한다. 늙을수록 젊고 새로워지는 詩人(佛蘭西  
의 馮多-)의 길과 젊어서 늙어 빠져는 古風한 詩人의 길 있다. 우리는 어느 길을  
選擇할 것인가?— 나는 다시 외여보고 싶다. 詩만이 안이라 모든 藝術은 新鮮한  
色彩와 새로운 味覺을 풍겨야 한다고!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續三)」(1940년 4월 29일)

『沈黙』의 우리에게 도사리고 안저 『火爐』스불을 응視하여 이미 날근 『필림』으로 化한 過去를 反芻하려는 “포-즈”를 꾸미는 宋鐵利 氏에게 早老하지 말라고 心願한다. 『庚辰元旦』은 新年 元旦의 雰圍氣를 莊嚴하게 노래하려고 했고 『津軍喇叭, 億兆生命, 宇宙, 萬有心臟, 步式, 莊嚴』과 같은 超〇級 名辭와 形容詞를 써다 박어 노아 呼令氣를 보히려 했고 作者의 意圖가 成功했스나 그것은 우리가 맛보고자 하는 詩는 안이었다. 新年 祝辭였다. 새해 아침 東天의 黎明을 向한 詩人의 莊嚴한 雄辯 연습이었다. 何如튼 이 詩人은 이 네 篇을 通하여 詩人의 才致와 品位를 보혀주었다. 精進하시이다. 霸氣를 일치 말고 新鮮한 藝術을 創造하시이다.

十二

崔錫信 氏—『田園의 黃昏』 『가을밤』 『鄉愁』 『哀唱』 등 四 篇.

平凡한 詩만 되푸리해 쓴다는 건 슬픈 일이다.

『田園의 黃昏』은 雅淡한 叙情 小品이다. 『가을밤』은 素材의 羅列에 不過하다. 이런 건 隨筆 材料지 詩의 素材는 안이다. 『鄉愁』亦是 平凡한 感傷의 表白에 긋치고 말었다. 『哀唱』은 限업시 애뜻하고 서러운 別離의 叙情을 그냥 平凡하게 옮겨 논 그저 無味한 詩다. 이 詩人은 精進하면 欠잡을 곳 업는 平凡한 詩는 써도 남의 가슴을 찌르르 울릴 그런 才致 있는 詩는 못 쓸 것만 가티 보인다. 平凡한 詩박게 못 쓴다는 것은 詩人될 地才가 업다는 것과 同義語다. 平凡한 詩만 쓸라면 웨 하필 詩를 골라 쓸 필요가 那邊에 잇슬까? 隨筆을 써 感傷을 表白하만 갖지 못할 것이다.

十二

趙鶴來 氏—『괴로운 詩人의 書』

괴로운 詩人의 獨白이어야 할 텐데 雜푸념이 되고 말었다. 괴로운 詩人이 괴롭다는 表情을 하는 것처럼 보기 승한 것이 업스며 또 그런 일을 흔히 볼 수가 업

다. 괴로우면 心身이 悲哀의 奈落에 끼라안고 마는 法이다. 沈默 속에 꾸물거리며 苦惱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그저 괴로웁다고만 表白하는 詩作처럼 無味한 것은 없다. 그것은 그러타 하고 中位에 안치놔도 無妨한 作品이란 것을 附記한다.

###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續五)<sup>13)</sup>」(1940년 5월 13일)

黃健 氏—『喊聲』

秀逸品이다. 지난날 쓰거운 地火를 마셨든 이 作家가 이제 새로 닷슬 드리운 人生 航路의 스산한 어느 埠頭에서 떨어져 간 喊聲을 戀戀하여 人제 병어리가 되고 장념이 되려는 그 苦惱로운 心想! 華麗한 龍宮의 饗宴을 想像하며 『해설편 悔恨<sup>14)</sup> 속에서만 불리워지는 『일허버린 노래가락』—『갈메기의 울음 엮는 飛翔』을 흐터진 빛과 自己를 은연中 구별하고 人의로운 길을 『보헤미안』처럼 허그푸게 걸어가려는 눈도 귀도 가리우려는 作者의 心情이 그린 듯이 써올라 흐르고 있다. 『傾向詩』마냥 激하지 안코 沈靜한 世界 안에 삶의 地火와 『보헤미안』의 叙情을 감추엇기에 이 詩는 한곳 潤澤하다.

月村 氏—『가을밤』

『하모니카』로 부는 悲曲을 듣는 듯한 그런 小曲이다. 제 興에 겨운 獨奏!

朴麟炯—『鄉愁』

좀 더 作文 연습을 하시라.

春草 氏—『斷想』

이런 『詩作文』은 戀愛편지에도 벗겨 느낄 수 없다. 하소연이 詩가 될 理 없다.

李村 氏—『悲哀』

13) 연재 순서상 '續四'가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만선일보』 지면에서 찾을 수 없다. 시인과 작품을 나열하며 평가하는 내용이기에 문맥으로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전까지 번호를 매길 때 오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연재 시차로 인한 단순 오식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만선일보』의 전체 지면을 확인하지 못하기에 단순 오식인지 자료 누락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14) 문맥상 해당 위치에 인용 표시인 ‘이’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悲哀라면 眞 世上은 쇠통 悲哀의 눈물에 빠져 太陽까지 그 물에 洗濯할 수 있을 것이다. 오호! 悲哀의 洪水. 審判!

趙俊哲 氏—『그날 밤의 追憶』

한 토막 『씨나리오』 撮影 助手가 出動하기를 期待된다.

李孤峰 氏—『追憶』

愛人에게 보내는 散漫한 書翰이다. 散文도 詩도 아닌… 그러나 『편지』박게 더 될 것 업다. 여기서 暫時 『답썰로』 해야 한 말씀 사뢰인다. 詩題를 통틀어 볼 새 어인 『悲哀』가 그리 만코 무슨 『追憶』이 소리소리를 묻고 되푸리뎨미뇨? 한쪽에서 『哀唱』하는가 하면 지 모동이에서는 『鄉愁』의 피리를 變變이 분다. 『孤獨』하고 『외로움』에 서리워함이 詩人의 氣質이뇨? 좀 더 強하고 熱하고 沈潛할 수는 업슬까?

###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續六)」(1940년 5월 14일)

金福洛 氏—『옛날이 그리워』 『龍興江』

前者는 그리운 벗을 애뜻히 그리는 叙情品으로 까라안즌 詩想과 부드러운 呼吸을 가졌다. 後者 『龍興江』은 詩의 素材를 料理하는 技法이 散漫하여 詩의 絃律을 調和식하지 못한 데다 間或 다듬어야 할 雜枝가 뒤섞겨서 詩의 品位를 낮추어 노했다.

李一葉 氏—『鄉愁』

한 포기 淸楚한 福州, 素心蘭 갖흔—孤淡한 詩를 쓰기란 詩 創作에 잇서서의 地才와 天品이 업시는 여간내기가 안이다. 슬픈 想念를 鄉愁 속에 무더버리고 孤獨이 소리 업시 蠱惑하는 밤 슬픈 傳說을 남기고 가 버린 故鄉을 못내 그리워하는 애뜻한 叙情이 이 한 그루 詩木에 果實마냥 대롱대롱 매여 달려 香味를 도둔다.

趙演鉉 氏—『밤비』

이런 바탕의 形式을 사볼 요량이면 무엇보다 各 聯의 調和가 和音을 일우어야 멋이고 格에 분다. 마즈막 聯이 아모리 읽고 십혀 보아도 귀에 썩 울리지 안는다.

그러나 作文과 詩—戀愛 書翰과 詩를 混食하는 우리 詩 部落에서는 越等한 歌<sup>15)</sup> 品이다.

申時堅 氏—『鏡泊湖畔』 『누에』

두 篇을 通하여 詩才를 보혀주었다. 『누에』는 想과 技가 어울리어 優秀한 作品을 曼들었다. 精進하사이다.

金井明—『鎮魂』

鎮魂曲의 歌詞를 聯想시키는 이 小品은 제법 새이고 자리가 잡혔다. 어느 程度의 餘裕를 보혀주었다.

朴定鎬 氏—『두 마음』 『잊고 십허라』

愛戀의 心情을 읊은 小曲 두 篇. 이 詩人의 才品을 애끼는 意味에서 좀 더 霸氣 潑潑한 詩를 써주었으면 하고 心願한다.

雪嶺 氏—『旅路』

人生의 苦된 半生을 나그네의 외로움에 比긴 이 詩作品은 亦是 凡作의 域을 脫하지 못한 感이 있다. 이런 詩는 詩를 쓴 作者와 이 詩를 읽는 讀者가 各其 이 作品에서 맞는 感銘이라든가 印象의 距離가 程道 以上으로 멀어진다. 이 말이 包含하는 意味는 詩想이 內部的으로 燃燒되어 詩盤에 引火하지 안흔 作品은 結局 그런 詩를 쓴 詩人(作者)의 自己陶醉와 讀者의 印象과의 距離가 멀어지지 안힐 수 업는 말이다.

崔在哲 氏—『雪夜日記』

張仁錫 氏—『北方의 詩』

이 두 篇이 모다 新春文藝 當選 詩(佳作)에 屬하는 作品이다. 當選 詩는 엇던 것인지 『스크랩·썩』에 여서서 于先 이 두 作品으로 當選 詩의 水準과 詩의 品格을 評價해 보련다.

『雪夜日記』는 聖誕祭 갓가운 어느 눈 오시는 날 밤 그리운 이를 생각하며 幸福 된 叙情을 읊은 詩다. 고요하고 보드라운 詩想이 힌 눈마냥 포곤이 나리 안즌 素

15) 앞서 '佳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을 보면 '歌'는 '佳'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

담한 叙情詩다. 平凡한 初聯에 比겨 終聯의 技品이 뛰어나 보인다.

『北方的 詩』는 두고온 北方에 向하여 追慕를 보내는 詩다. 아름다운 浪漫的 시내가 潺潺히 구비쳐 흐르고 있다.

『그 故鄉 白樺林 숲속에서는  
하로 終日 가마귀가 서러웁게 울고  
禮拜堂 보이는 夕暮의 風景은  
나의 浪漫性을 자라내었다.  
國境에서는 하로에 몇 번씩인가  
素朴한 傳說을 실고 鴦매가 往來한다.  
少年인 나는 손고락을 입에 물고  
몰래 고개 우에서 鴦매와 離別한다.  
그새에는 眞珠가튼 눈이 泫 泫 泫 주었다.

(北方的 詩……一部分)

『雪夜日記』가 感傷을 노래하면서도 感傷에 穢지지 안흔 『詩의 美德』과—『北方的 詩』가 少年의 애뜻한 浪漫을 노래하면서도 安價한 『로맨티시즘』에 隨하지 안흔 『詩의 禮節』은 好偶의 “콘츨라스트”다. 新鮮한 感覺과 技法의 洗鍊을 汲혀 두고 생각하자면 이 두 篇 當選 詩(佳作)는 當選 詩의 水準을 過히 低下시키지는 안헛다는 것을 說明할 수 있다.

韓鳴泉 氏—『終焉譜』

날근 形態로 新鮮한 感覺을 그려 노흔 佳作이다. 이 詩에는 煩用 이빨에 신물이 돌 만큼 보고 느끼는 素材의 無秩序한 羅列이 많다. 굳테기가 많다. 必要 以外의 表現(文字의 羅列)은 많다. 整然한 秩序와 文字의 配置—그로부터 오는 “뉴-앙스”의 濃厚! 꼭 旣인 詩다.

尹君善 氏—『光明의 窓』

欠잡흔 데 旣는 雅談한 詩品이다. 尹 氏의 詩才와 技品의 飛躍的 進歩를 보혀 준 佳作이다.

##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續七)」(1940년 5월 15일)

月村 氏—『浦口の 봄 아침』

새로운 形式을 追求하는 그 志向! 그것만으로도 新進 詩人の 名譽를 차올 수 있지 안 ○○○○○○○○<sup>16)</sup> 과 케케묵은 感覺의 울타리 안에서 詩를 創造하는 代身 詩를 複製(模倣)하는 이미 褪色한 青年 詩人들에 比해볼 새 아직 體內에 未熱한 五官을 가지고 ○○○○○○○○<sup>17)</sup> 힘껏 벌리어 새로운 “포에지-”의 世界로! 恆時 飛翔을 冀望하는 젊은 詩人—新時代, 詩人들의 霸氣를 나는 높히 사고 십다. 그러나 지나친 飛翔은 오히려 虛妄과 “넌센스”를 同伴하는 수가 있지 안홀까? 無意味의 意味性을 強調하는 “술-레알리스트”들의 詩論에는 敬服할 수 업스므로 意味의 混亂으로 充滿되어 그것이 反對로 無意味한 詩作品으로 化해버리는 이런 類의 詩를 쓰는 無意味를 月村 氏에게 삼가 警告하고 십다. 意味의 濫用으로 詩人 自身이 那終엔 “판타-지” 病에 걸려 自己도 理解하지 못하는 無意味한 푸념과 녀 두리와 言語의 遊戲로 充滿된 詩를 쓰게 되는 수가 만코 어떤 詩를 우리는 才操 잇는 新人들에게서 間或 볼 수 있다. 그러나 月村 氏는 아직 그런 幻想病에는 걸리지 안홀 만한 自省과 詩的 健康을 가지고 있다.

趙鶴來 氏—『園譜』

날근 “필림”을 다시 鑑賞하는 것 가튼 그런 印象을 가지게 한다. 『테-마』가 統一되지 못하고 場面 場面이 散漫하다. 雄大한 自然—大地의 心臟 牧場 太古 壯한 畝 沃土 寶庫 金빛 太陽의 瀑布 大河 地圖—이런 “스케일”을 詩化하는 데는 『몬타-쥬』 手法을 適用함이 엇덜른지? 何如튼 이런 詩는 表現의 誇張에 싸지기 쉬웁다. 表現의 誇張이라고 해도 그 表現主이 題로<sup>18)</sup> 向하야 統一만 되면 優秀한 詩를 일출 수 잇슴은 林學洙의 戰場 詩가 證左하고 잇지만 여간내기가 아니다.

千青松 氏—『異域의 밤』

16) 한 행 판독 불가

17) 한 행 판독 불가

18) ‘이’와 ‘主’의 순서 오식으로 보인다. 순서를 바꾸면 ‘表現이 主題로’가 된다.

童謠인지 詩인지 區別키 어렵다. 아직도 詩 마을의 등님어 洞리에 살고 있다.

宋石滢 氏—『詩人』

詩人이 새로운 形式을 模倣하려고 할 새 窠臼 부리는 “曲藝”를 되푸리하였다. 어린애가 어른 周衣를 입고 엉덩춤을 추는 格이다.

이 “曲藝”가 되지 안흐려면 그 周衣에 마지막 만큼 骨格이 成長해야 된다. 그 形式에 그 內容— 한 內容의 表現에는 唯一 形式밖에 없다. 宋 氏의 精進을 祈願한다.

### 金友哲, 「滿洲 朝鮮語 詩壇과 詩人(完)」(1940년 5월 16일)

以上으로 大略 作品評을 窺하고 다음으로 滿鮮 學藝欄 編輯部에 한말씀 請願하려고 한다.

新年 劈頭에 本紙는 滿鮮 文人들을 動員하여 滿洲 朝鮮語 文學의 樹立에 對한 大氣焰을 吐露시킨 바 잇었다. 그 “해계모니-”를 잡고 있는 本紙 學藝部 諸氏들은 그 誠意와 “이니시아티브”를 어느 共同墓地에 合葬했는지 甞고 辛다.

動議에 追隨치 못하는 文學 運動의 不振은 文人과 編輯部에 半半의 責任이 잇을 것이나 文學 運動과 第一期에 잇서서 過渡의 이나마 열쇠를 掌握하고 있는 學藝部의 能動的인 勞力を 願念하여 마지안는다.

이제 不振 打開策으로 몇 條目 愚見을 羅列해 보기로 한다.

- (1) 新進 作家에게 機會를 均等히 주어 短篇을 繼續하여 掲載할 것.
- (2) 讀者 詩壇가튼 그런 發表 形式을 버리고 하로에 單 한 篇이라도 조흐니 精選하여 二段으로 詩 作品을 待遇해줄 것.(以下 略)
- (3) 季節의 換代 時마다 文人들에게 請하여 季節 隨筆을 쓰도록 할 것.
- (4) 『葉書評論』 또는 『展望台』 등을 可及的으로 文人들에게 提供할 것.
- (5) (略)
- (6) 새로운 『學藝뉴스』를 迅速히 規模 잇게 報道할 것.
- (7) 滿鮮日報을 圍繞하고 있는 文人들의 名簿를 作成하여 그 사람의 長技와 畵

를 따라 詩 콩트, 隨筆, 紀行, 短篇을 請稿할 것.

(8) 每年 一次씩 長篇小說을 募集할 것.

(9) 批評家를 動員시켜 時評 創作月評을 揭載하고 때로 詩論 評論도 실릴 것.

(10) 文人에게 若干의 稿料 或은 謝禮를 進呈할 것. 發表에 잇서 좀 더 厚待할 것.

以上 十 條目을 들어 于先 編輯部의 義嚮을 打診하고자 한다. 願컨댄 滿洲 朝鮮 語 文學 運動의 發展을 爲해 能動的인 精神으로 그 一翼의 任務를 擔當해주기를 祈願한다.